



즉시 배포용: 9/16/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는 800명의 세차장, 식당, 슈퍼마켓, 농장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손해배상액, 합의금이 33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 전체의 착취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 북부 지역의 라틴계 이민자들의 경제적 기회와 고용을 창출하는데 헌신하여 '북부 지역 다양성 수호자상(Champion of Diversity in Upstate Communities Award)'을 수상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최근 조사 결과 뉴욕 주의 착취 노동자 800명의 체불임금, 손해배상금, 합의금은 330만 달러에 달한다고 금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세차장 근로자의 경우 목표 임금에 비해 44만 6천 달러가 체불된 상태였으며 슈퍼마켓 근로자의 경우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 기간 중 불법적인 차별로 인한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노동 시간 보장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 (A fair day's wage for a fair day's work)’은 지당한 일이며 뉴욕 주는 노동자를 착취하려고 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다. 또한 “뉴욕 주 전체에서 임금체불 고용주 기타 불법고용 행태를 지속적으로 엄중 단속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기회와 평등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Cuomo 주지사는 이러한 최근의 조사 결과를 ‘북부 라틴계 대표자 회의(Upstate Latino Summit)’에서 발표하였다. 해당 단체에서는 뉴욕 북부 지역에서 라틴계 주민들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헌신한 뉴욕 주지사의 공을 높게 평가하여 ‘북부 지역 다양성 수호자상(Champion of Diversity in Upstate Communities Award)’을 시상하였다. 본 수호자상은 ‘이베로 아메리카 행동연맹 (Ibero-American Action League)’의 대표이사 회장인 Hilda Rosario Escher가 직접 시상하였다.

Cuomo 주지사의 뉴욕 주 전체의 노동 착취 엄중 단속 방침의 일환으로서 뉴욕 주 수사관들은 네일샵, 식당, 건설사, 슈퍼마켓, 세차장과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분포한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종종 임금 절도, 인신 매매, 보복, 안전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 불안정하거나 예정되지 않은 시간 및 소모품, 교육이나 유니폼 불법 공제를 통해 희생을 당한다.

뉴욕 주는 옹호 단체, 노동 조합, 사업 단체, 노동자, 불법 현장 단속 공무원과 같은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차장 근로자 보호

늦은 5월 주 수사관들은 소/도매 및 백화점 조합 및 '뉴욕 변화 공동체 (New York Communities for Change and Make The Road New York)'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브루클린 지역의 11개 세차장을 방문하여 77명의 근로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몇 시간 뒤 여러 근로자 집단과 그들의 근무 장소에서 벗어난 곳에서 면담을 가져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 뉴욕 주는 97명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손해배상 예정금은 각각 44만 6천불, 11만 1천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업주들은 3만 불의 벌금이 병과된다.

2011년 1월부터 노동부는 뉴욕 주 전체 98개의 세차장에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수사하였다. 그러한 수사 결과 91건의 불법행위를 파악하여 13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21만1천 달러 이상의 금액이 정상 지급될 수 있었다.

식당 근로자 보호

2015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주 수사관들은 Queens 지역의 식당 근로자들의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예정액은 68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파악하였다. 수사관들은 Queens 지역 식당 10곳을 방문한 결과 적정 임금과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43명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고용주에게는 또한 35,000 달러의 벌금이 병과되었다.

같은 기간 주 수사관들이 Manhattan 지역의 식당 9곳을 방문한 결과 64명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은 588,000 달러에 달했다. 해당 고용주에게는 또한 25,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초 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인 Mario J. Musolino는 '서비스업 임금 위원회 (Hospitality Wage Board)'의 권고에 따라 뉴욕 주 전체의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기본 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명령을 발표하여 2015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슈퍼마켓 근로자 보호

이와 비슷한 수사가 Brooklyn 지역의 25개 C-Town 슈퍼마켓에서 이루어졌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주 수사관들은 32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360,000 달러의 임금체불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사관들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 예정액은 90,000 달러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다.

몇몇 사업주들은 법률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몇몇 사업주의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사업장들은 지급계획 시행 중에

있거나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농장 근로자 보호

2015년 1월부터 6개월간 주 농업노동 전문가들은 23명의 근로자에게 9,000 달러 이상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Long Island와 뉴욕시 북부 지역의 농업노동 전문가들은 농장 근로자 숙소와 관련된 뉴욕 주 및 연방법 위반사례를 발견하여 관련 기관에 회부하였다. 이는 안전하지 못한 숙소 환경, 식수 미제공, 과다인원 수용 등에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보복 및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사안 역시 관련 기관에 회부하였다.

2015년 초부터 6개월간 주 수사관들은 380개 이상의 농장을 수사하였고 300개의 농업 사업장에 고용 지원 및 노동법 준수와 지원 기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수사 기관은 농장 조사 방문을 늘이고 위반 회수를 줄였으며 보다 많은 사업장이 법률을 준수하게 만듦으로써 근로자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불법 차별 대우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구제책 제공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더불어 뉴욕 주는 근로 장소에서 인종, 출신 국가, 장애 여부, 성별, 기타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5년 6월부터 '인권부 (Division of Human Rights)'는 뉴욕 주 전체에서 도매업, 요식업, 서비스업, 건물 관리, 의료업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불법 차별 대우 사례를 고발한 25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총 100만 달러 이상의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고용주에게 부과하였다.

가령 슈퍼마켓 산업군의 경우 지난 3개월간 뉴욕 주 인권부는 10 건의 차별 사건에 대해 총 1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내지 합의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올해 7월 공판이 있는 이후 인권부는 Queens 지역의 슈퍼마켓 1곳에 8,215.90 달러의 체불임금 지급 및 보상적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근무 중 잠깐 쉬러 화장실을 다녀오면 안되겠냐고 부탁한 당노병이 있는 계산대 직원을 해고한 동 사업주에게 5,000 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하였다. 해당 매장 규정에 의하면 근무 시간 중 두 번의 휴식이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산대 직원의 상사는 8시간 동안 단 한번의 휴식만 취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산대 직원은 어지러움을 호소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명령이었다.

올해 8월, 인권부는 Holbrook에 위치한 폐기물 관리회사의 한 직원이 제보한 인종과 보복에 기인한 고용 차별 사건에 대해 5,500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해당 직원은 업무 중 괴롭힘을 당했으며 승진 및 기타 특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결국에는 해고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모든 착취 근로자의 구조

특정 산업군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혹사 사건에 대한 수사는 Cuomo 주지사의 모든 착취 근로자를 구조하려는 노력에서 비롯한 것이다.

지난 5월, Cuomo 주지사는 ‘네일샵 산업군 대책 위원회’를 소집하여 뉴욕 주의 네일샵 근무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방면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한 대책 수립에는 법률, 규제, 행정 상의 개선책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7월, 네일샵 근로자 보호라는 기존 계획에서 더 나아가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 전체를 대상으로 각각의 산업군 대책 위원회를 소집하여 노동 착취를 뉴욕 주에서 뿌리뽑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대책 위원회는 10개의 주 기관으로 구성되며 뉴욕 주 전체에서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금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행 노력은 고용주들의 불이행이 가장 잦은 업종과 근로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업종에 집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산업의 노동 분포상 지리적 또는 지역 사회와 단절된 사업장, 보고된 사망률에 기반한 근무의 위험성, 주 수사관의 경험, 업계 특성 및 통계상 정식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 각 산업군별 이민 노동자들의 구성 비율을 고려해서 그러한 집중 조사 장소를 선정하게 된다.

적정 임금 문제, 근로 환경의 안전성, 기타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대책 위원회 직통전화 (888) 469-7365로 연락하여 자문을 구하기 바란다.

Mario Cuomo 경제 정의 캠페인

Mario Cuomo 주지사는 노동 착취와 맞서 싸우는 것과 더불어 ‘Mario Cuomo 경제 정의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본 캠페인에는 오는 2016년 뉴욕 주의 최저시급을 15 달러로 인상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Cuomo 주지사는 “이는 우리 뉴욕 주의 가계 지원을 위한 가장 진취적인 정책”이라고 언급하였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